

2018.03.22

# 푸틴 4.0(집권 4기)의 미래와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장.

한국외대 초빙교수

# 러시아 대선 각 후보 득표율

##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данным ЦИК РФ на 10:02. Обработано 99.94% протоколов



자료: 얀덱스 2018.03.20  
<https://www.yandex.ru/>

# 선거 전 주요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이

	January 14, 2018	January 21, 2018	January 28, 2018	February 4, 2018
Putin	65.9	67	68.5	66.3
Grudinin	6.2	6	5.9	5.5
Zhirinovskii	6	5.9	6.3	6.5
Sobchak	1.5	1.4	1.1	1.2
Yavlinskii	0.6	0.6	0.7	0.5
Titov	0.4	0.3	0.2	0.1
Will vote for someone else	1.1	0.8	0.4	0.2
Will damage the ballot	1.2	1.1	0.8	0.9
Will not go to the polls	7.9	7.5	6.8	7.6
Undecided/hard to say	9.1	9.4	9.3	11.2

Public Opinion Foundation (FOM) all-Russian representative survey (73 regions, N=3000).  
Source: <<http://fom.ru/Prezidentskievybory-%E2%80%93-2018/13942>>

# 선거 전략- '강한 대통령- 강한 러시아'



선거 구호: "강한 대통령, 강한 러시아"

이는 1998년 9월 경제위기 시 구원 등판한 프리마코프의 총리 인준 투표 전략과 유사.

당시 프리마코프는 총리 인준 투표를 앞두고 당시 국가 두마에 경제위기에서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선 정파를 넘어선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모두의 총리 전략을 구사.

그는 인준 요구 연설 등을 통해 러시아의 부활과 전진을 위해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국가 두마에 자신의 인준을 압도적인 지지로 해 줄 것을 요청.

# 선거 결과 - 푸틴 대중 지지 확보 성공

- 푸틴(66)//2024년 72세까지 집권 확보 - 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일 오전 5시 기준으로 99.8% 개표. 득표율 76.7%로 푸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혀.
- 국익 강조, 사회적 보수주의, 러시아 정교, 국가 및 주권 민주주의 강조  
(3월 18일은 크림 합병 4주년과 겹쳐.)
- 2000년 첫 당선 이후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
- 옛 소련 시절 이오시프 스탈린(1922~53년)의 31년 독재 이후 최장 통치.

//결과는 선거 이전에 사실상 결정, 문제는 투표율

# 선거 결과 - 푸틴 대중 지지 확보 성공

- 2004년 대선(득표율 71.3%)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어→ 선거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
- 특히 모스크바의 득표율이 대폭적으로 상승
- -2012년 모스크바는 46.95%를 지지-→당시 전국 최하
- -2018년 3월 18일 -→ 70.88%
- -캄차카, 알타이, 야쿠티야, 옴스크, 코스트롬 지역 등보다 높아.
- 
- → 엘리트의 지지가 아닌 대중적 지지 확보에 성공
- → 러시아 대중의 푸틴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성공

# 푸틴에 대한 압도적 지지-젊은 층의 지지

- -러시아의 25세 미만 청년들은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 -태어나서 이번 선거 까지 푸틴 이외의 리더를 경험한 적이 없다.(푸틴 세대)
- -급진적인 변화가 국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강하다.
- - 18~24세 러시아 청년의 86%가 '푸틴을 지지한다', 67%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 -2017년 12월 레바다센터의 조사

# 푸틴 선거 압승의 이유들

-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 시스템 -사실상 변화가 없다.(나쁜 균형, "bad equilibrium")
- 서방의 압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상황도 푸틴에 유리
  - -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비록 일시적일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부터 러시아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전환
  - - 선거 2일전 발행한 40억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 성공 등 러시아 시장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들의 신뢰 반영 등
  - 
  - -국방 등 신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향후 6년 동안 GDP 150% 신장 시키겠다는 등 호언
  -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존재감 부각 등
  -

# 푸틴 4.0의 방향→공약이 없었다. 대신 국정연설

- 푸틴
- 무소속으로 출마→ 러시아 선거법상 무소속은 공약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됨. 실제로 푸틴은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 이 때문에 국정연설이 푸틴 4기 국정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연례 국정연설은 매년 연말에 실시되었으나 2017년에 하지 않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3월 1일에 실시했다.
- 그는 이 연설을 통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목표를 제시
  - - 국방력에 대한 지속적 투자(a new nuclear arms race)
  - - 사회복지 등 사회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 푸틴 4.0과 국정 연설

- 3월 1일 있었던 푸틴의 국정연설-향후 추진 목표 천명
- △빈곤과의 투쟁
-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제시.
- -러시아를 6년 안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

# 푸틴 4.0과 국정 연설

- 국내 정책
  - -현대화 이슈(domestic modernization issue)
  -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선 쿠드린 팀의 시각이 반영 (reform 대신 rebooting이 강조됨)
- 대외정책
  - -러시아 식의 대외정책과 세계관 강조
  - -자위권 및 대응 능력 강조: 신형 무기 개발 강조 등.
  - -새로운 현대적 러시아 우리 식으로 건설하겠다.(a new modern high-tech Russia on its own terms.)
  - “현재의 극심한 대립이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협과 일방적 행위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이제 이를 조용히 멈추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를 되돌리자”

# 푸틴 4.0과 국정 연설-모순이 드러난 부분들

- 대내 정책은 디지털 -테크노크라트, 경제학자 등 성장 및 혁신 전문가들
- 대외 정책은 실로비키-대통령과 군부 그리고 서방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외교 세력 들
- 
- 푸틴 "기술과 이자율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가 막강한 힘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불공평하며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 
- 연설 전반부- 디지털, 신기술시대에 대한 언급 강조
- 연설 후반부-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러시아식 현대화 등을 강조

# 가장 날카로운 대립 부분-경제 운용 전략

- 러시아의 전통적인 두 세력 간 갈등에서 푸틴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관건
- 양 세력은 경제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 화합이 불가능
- → 소련 말기 두 세력 연합을 시도했으나 실패
  
- 1. 야로멘코 스쿨(Yury Yaryomenko)
  - 러시아 경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산업체에 의존한다
  -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산출을 늘려야 하며 기업 및 생산 라인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국방산업 및 중공업 우선주의자들과의 연대
  - → private and state banks, oligarchs' businesses, and state corporations
  - 안톤 바이노(크렘린 행정실장), 안드레이 벨루소프, 안드레이 클레파츠(브네슈에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 등이 대표적
  
- 2. 가이다르 스쿨(Yegor Gaidar)
  - - 시장, 금융, 기업 투자 촉진 환경 등을 강조
  - 알렉세이 쿠드린, 안톤 실루아노프, 엘비라 나비올리나 등이 대표적

# 가장 날카로운 대립 부분-경제 운용 전략

- 쿠드린의 개혁 현실화 가능할 까?
- -과거 비슷한 시도 실패 사례
- /게르만 그래프 2000,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8 to 2012,
- /최근의 발전 전략 Strategy 2020
-

# 푸틴 4기의 대응-예측

-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엘리트 시스템의 기초를 흔들지 않는 어떠한 기술적 변화 혹은 개선도 환영한다.//국제투명성기구 조사 135위/180개국
- -대외적으로는 서방에 동등한 대접을 요구
- -소련을 복권시키는 것은 아니다. 서방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메시지의 확실한 전달.
- -러시아내에 경제,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서방을 건설하는 것.
- -"러시아가 (외부) 지시나 최후 통보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등한 파트너로 복귀하는 것이 서방의 신경질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3월 15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

# 푸틴 4기의 대응-예측

- 푸틴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푸틴 브랜드'로 무장된 강력한 엘리트 시스템을 구축 (hybrid autocracy) (populist authoritarianism)
- -이들은 경제적 정체, 관성 등이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편 시도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생각.
- -하지만 집권 4기는 푸틴 이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정치적 사이클의 시작
- 푸틴의 후계자를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게 최대 난제--후견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
- 심지어 헌법 개정을 통한 종신 대통령을 꾀할 수 있다는 극단론도 -가능성 희박

# 푸틴 4기의 대응-예측

- -일반적 예측-새로운 출발이지만 본질적 변화는 없을 것.
-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vs 2017년 9월의 의회 선거에서 보여지듯 변화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어떻게 조화해 낼 것인가.
- -특히 모스크바 및 엘리트 층에서 나타나는 장기집권 피로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 -2007년 메드베데프와 세르게이 이바노프 간 후계 경쟁이 초래했던 갈등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후계 구도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
- -때문에 2021년 국가 두마(하원) 선거 때 까지 후계 구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 높다

# 총리 자리는 누가?

- 푸틴-5월 대통령 취임식 후 밝히겠다고 수차례 언급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세력 갈등의 조화 혹은 조정자.
- 유임 가능성
- - 메드베데프의 상징성 때문에 유임될 것이다.
- -메드베데프는 통합 러시아 당의 대표. 이는 크렘린, 정부, 의회 간 세력을 통합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뜻.
- -만약 푸틴 유고 시 메드베데프는 과거 푸틴이 직접 선출했던 후계자라는 점이 강점.(대통령 경험)
-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성이 높다는 장점
- 유임 시의 약점
- -과거 프라드코프 총리 (2007), 체르노미르딘 총리(1997)는 강력한 부총리들과의 동거에서 영향력 쇠퇴 겪어.
- -쿠드린, 벨루소프 등은 부총리로 임명될 가능성 높아.

# 총리 자리는 누가?

- 메드베데프 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장기집권의 피로감을 주지 않기 위해선 내각이 새로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
-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
  - -안톤 바이노 크렘린 행정실장
  - -로스텍크 이사장 세르게이 체메조프
  - -연방회계감사원의 타티아나 골리코바
  - -산업통상부 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
  -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 등이 거론 되고 있다.

## 4.0 이후를 염두에 둔 푸틴의 후계자 후보군 -거론되는 인물들

-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들// 새로운 세력
  - 경제 개발부 장관 - 막심 오레슈킨(35)
  - 대통령 행정실장 -안톤 바이노 (46)
- 기존에 거론되던 인물들 중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 //전통세력
  - 국방장관 - 세르게이 쇼이구
  - 총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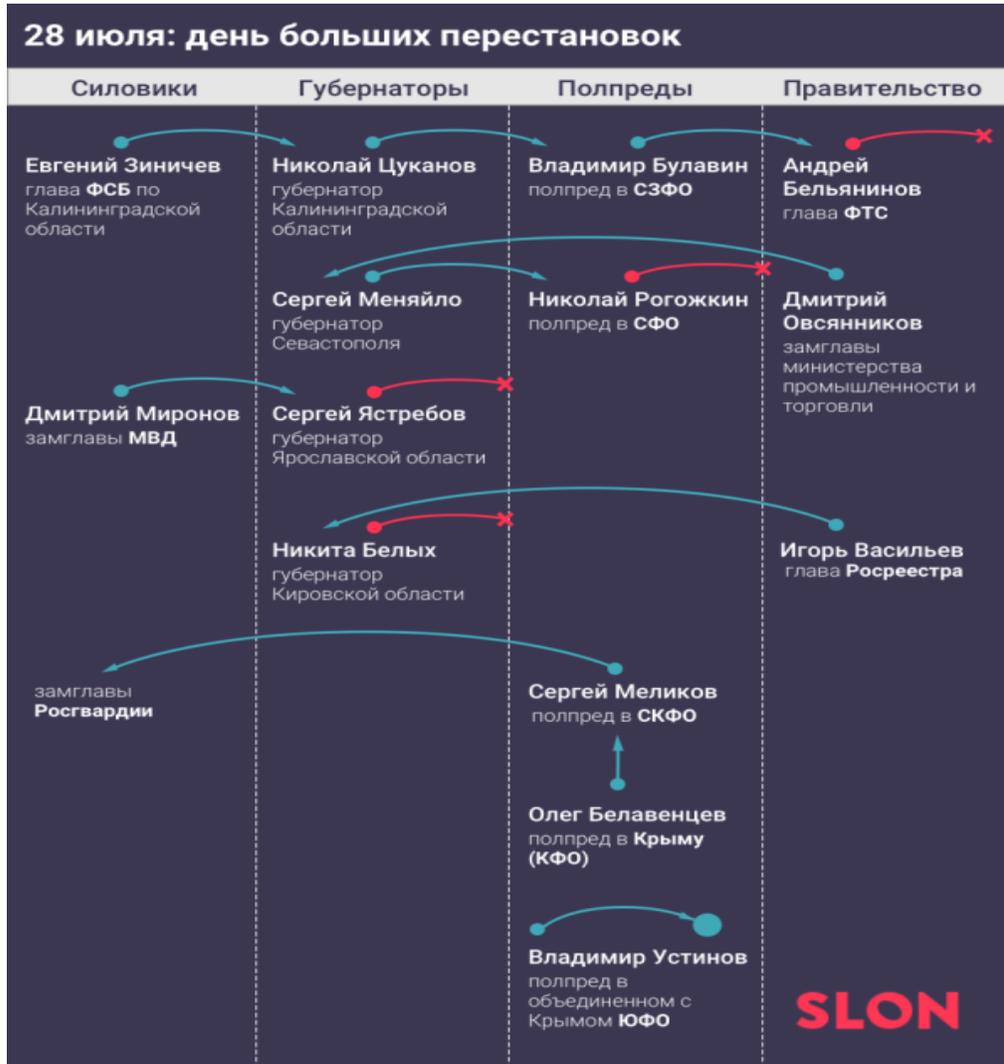
# 최근의 인사 및 행보를 통한 미래 예측

- 변화 예측의 단서 중 하나.
- - 크렘린 경호실의 약진
- -푸틴 대통령 40-50대의 테크노크라트 및 실로비키 출신이지만 정치적 야심이 없고 동년배가 아닌 인물들 선호
- -푸틴의 이너 서클의 변모 /과거와 달리 동년배가 아니라 나이 차가 나는 인물들.
- 
- -총리 경쟁도 가속-모스크바 시 선거 득표율의 약진으로 세르게이 소바닌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
- 당선 확정 직후 캠프 방문한 푸틴/ 메드베데프 동행하지 않아.//푸틴 당선 확정 직후 기사 중 러시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기사
- **После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 подал странный сигнал Медведеву**
- ВВП появился в своем избирательном штабе без премьера и ушел от вопроса, останется ли ДАМ при должности
- <자료:[http://www.mk.ru/politics/2018/03/19/posle-vyborov-prezidenta-putin-podal-strannyy-signal-medvedevu.html?utm\\_referrer=https%3A%2F%2Fzen.yandex.com](http://www.mk.ru/politics/2018/03/19/posle-vyborov-prezidenta-putin-podal-strannyy-signal-medvedevu.html?utm_referrer=https%3A%2F%2Fzen.yandex.com)>

# 푸틴 4기 앞두고 진행됐던 인사 개편 중 일부

- -고위급 인사
- /크렘린 행정실장 안톤 바이노(46) (2016년 8월 12일-현재 )
  - -일본 주재 외교관 출신 /에스토니아 공산당 제1서기 칼 바이노의 손자
- 제 1 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엔코(정치 담당/전 총리, 전 로스아톰 회장)
- 바체슬라프 볼로딘(두마 의장/전 크렘린 정치담당 부실장)
  
- -알렉세이 쿠드린/ 2018년 이후의 정치경제사회 관련 발전 방안 준비
- -막심 오레슈킨(35) 경제발전부 장관 임명
- 알렉세이 울루카예프 장관은 수뢰혐의로 체포. -이고르 세친과 갈등 및 세력 싸움의 희생양 설.

# 푸틴 4기 앞두고 진행됐던 인사 개편 중 일부



- 2016년 7월에 있었던 주지사 개편 작업
- - 톨라 주지사 Alexei Dyumin,
- 야로슬라블 주지사 Dmitry Mironov,
- 칼리닌그라드 주지사 Yevgeny Zinichev  
Zinichev는 칼리닌그라드 주지사 자리에서 FSB 부국장 자리로 전보.
- 모두 FSB, FSO 등 실로비키 출신
- 키로프 주지사 Nikita Belykh,체포//통합 러시아 당 출신이 아닌 자유주의 성향의 주지사 -메드베데프와 친분
-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Mikhail Zurabov 해임-메드베데프 고문 출신 , 포로셴코에 우호적이었던 인물
- 연방 세관장 Federal Customs Service (FTS) Andrey Belyaninov 및 크렘린 행정실장 세르게이 이바노프 해임
- 이고르 세친의 입김이 작용?-전체적인 분위기는 세친의 권력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라는 반대의 견을 내는 관측자들도 있다.

# 푸틴 4기 앞두고 진행됐던 인사 개편 중 일부

- 2017년 인사
  - -두 차례에 걸쳐 20명 개편
  - -지난 5년 내 가장 큰 규모
  - -2017년 봄 7개 주지사 개편
    - /페름, 노브고로드,랴잔, 마리 엘 공화국, 우드무르티, 부랴트, 카렐리아 주지사들 파면
  - -2017년 가을 11개 주지사 개편
    - /옴스크, 사마라,니즈니 노브고로드,이바노보, 오룔,노보시비르스크, 프스코프,크라스노야르스크,프리모리예, 다게스탄, 네네츠 자치구 해임.
  - 테크노크라트 중심, 정치 야망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 연고주의에서도 거리가 있는 편
  - 크렘린 행정실 교체 후 단행-안톤 바이노와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주도

# 대통령 전권대표 기능의 변경 혹은 축소 예상

- 대통령 전권대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거의 확실시
- - 이 경우 인적 동원 및 안보 기능을 약화/테러 대책 및 연방 보안부의 지방 하급 안보 관련 기능 박탈
- -특정 지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에 대한 책임 기능 강화
- 
- -부총리급 혹은 각료급 자리와 겸직 시키되 실제로는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내각 인사는 아닌 형태로 운용할 가능성
- -이 경우 부총리 숫자는 9개에서 16개 정도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
- - 이 경우 제1 부총리가 2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쿠드린 등이 총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제 1부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음.

# 권한은 막대, 사회적 정치적 책임은 적은 황금 보직 군의 운명은?

- 로스네프티의 이고르 세친
- 로스텍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 대외경제은행장 안드레이 코스틴
-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사들
- 미국 대선 관련 인사들



새로운 세력 갈등 및 새로운 조정자의 출현을 꺼리는 편

푸틴 4기 공식 출범일인 5월  
까지 다양한 협상이 벌어질  
듯

푸틴 4기 내내 종신 집권의  
유혹에 대한 배후 세력들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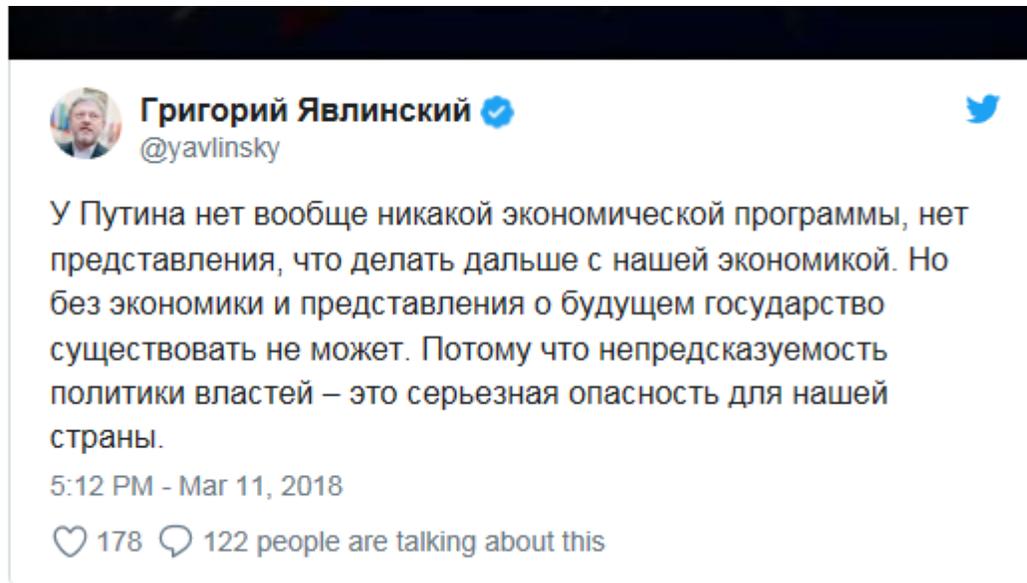
# 황금 보직군 그리고 푸틴 4.0의 운명은?

- 러시아의 국내 정치체제 (political system)
- 1차 목적-현재의 엘리트 집단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보호하는 것/푸틴 브랜드로 포장된 개인들
- -서방 가치에 대한 거부,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개혁의 강조
- -크렘린이 장악한 정치와 결합한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
- 권력이 곧 부(Power is property. Power equals property.)

# 황금 보직군 그리고 푸틴 4.0의 운명은?

- Putin-Sechin 등 후견 세력과의 양두정치(duumvirate)?
- -일종의 역(reverse) 후견 정치
- -푸틴을 보호하는 세력과의 연대
- -반부패 투쟁 강화 속 기존 엘리트 그룹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신뢰 부여

# 푸틴 체제에 혹평하는 반대파들—그러나 지지율이 1% 대도 안되는 현실



Григорий Явлинский   
@yavlinsky



У Путина нет вообще ника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нет представления, что делать дальше с нашей экономикой. Но без экономики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будущем государство существовать не может. Потому что непредсказуемость политики властей – это серьезная опасность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5:12 PM - Mar 11, 2018

 178  122 people are talking about this

# 푸틴 4.0과 한반도

- -대외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정책 변경은 없다. 한반도도 전통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예상하지 않지만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은 수동적으로 추동할 듯.
- -신동방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및 주변지역 관리
- -중국 및 일본과 대화 및 고위급 방문 등 교류 적극화 예상 //경쟁국 및 주변국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협력 전략 절실
- -북한 핵 관련 : 러시아의 역할 기대하나 주도적 역할은 주저
- -비핵화 관련 글로벌 사회와 협력, 하지만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의 합의나 강요는 거부 하는 전략
- -4자 회담화 반대, 6자 회담틀 재개 추진할 듯.
- - 강대국 주의, 지역 이해 당사국, 러시아의 이익권 개념 등을 고수, 러시아의 일방적 양보나 소외 용납 하지 않을 듯